

세네갈,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세네갈,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개요]

- 6월 22일, 세네갈과 프랑스, 독일, 유럽 연합(EU)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을 결성하여 세네갈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보급과 기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2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 이 협약은 세네갈의 발전 목표와 기후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및 포괄적 접근 방식을 강조함
- 이에 앞서 세네갈에서 개최된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적응 워크숍에서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최빈국들이 기후 회복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강조하며, 농민 현장 학교 접근법을 통한 효과적인 해충 방제와 지식 공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 등 기후 적응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룸
- 또한, 세네갈과 케냐는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협회 가입국으로 승인되어 IEA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IEA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됨

세네갈,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2023. 05. 31.

세네갈 및 케냐, 국제에너지기구 가입

세네갈과 케냐가 공식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협회 가입국으로 IEA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두 국가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 접근성 및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두 국가의 합류로 IEA는 기존 11개 회원국에서 총 13개 국가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IEA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됨. 특히, 세네갈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에 대한 범국민적 접근성, 산업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받으며 다른 IEA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지역의 이러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3. 06. 02.

국가 간 학습을 통한 기후 회복력 구축

세네갈에서 열린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적응 워크숍에서는 기후 회복력 향상을 위한 개발도상국 간 상호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프랑스어권 최빈개도국(LDC)이 모여 GEF가 운용하는 LDCF(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의 활용 현황 등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 참가자들은 세네갈의 기후 적응 프로젝트 현장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해충 방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농민 현장 학교 접근법(Farmer Field School Approach)'에 대해 배우고 기후 적응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함. 또한 LDCF 프로젝트와 세네갈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협력으로 조달한 세네갈 기후 회복력 기금의 외부 투자 유치 성공 사례와 설립 초기 직면한 어려움, 해결 조치 등에 대한 인사이트도 공유함.

자료: gef (thegef.org), 「Countries build climate resilience by learning from one another」, 2023-06-02

• 2023. 06. 22.

IPG, 세네갈의 기후 및 개발 목표 결합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발표

6월 22일, 세네갈은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로 구성된 국제 파트너 그룹(International Partner Group; IPG)과 함께 세네갈의 범용 에너지 접근성 추구하고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출범함. 이 파트너십으로 향후 3~5년 동안 국제 파트너와 다자 개발은행은 세네갈의 재생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25억 유로의 신규 자금을 동원해 2030년까지 세네갈의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0%로 늘리고 2024년까지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배출 개발 전략을 완성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임. 이번 협약은 경제 발전과 기후 목표 연계의 필요성뿐 아니라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하고 에너지 이외의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ec.europa.eu), 「The EU and the International Partners Group announced a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with Senegal combining climate and development goals」, 2023-06-22

• 2023. 06. 29.

세네갈, 아프리카가 기후 금융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님을 증명

세네갈, 프랑스, 독일, EU는 재생 에너지로의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을 결성해 세네갈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달성하도록 25억 유로를 지원함. 이 협약은 세네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기후 목표와 함께 현실적인 국가 개발 목표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범국민적 에너지 접근이라는 세네갈의 비전에 부합하는 등 세네갈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음. 세네갈의 경험은 국익을 존중하고 각국이 자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국제 협력의 가치를 제시함.

자료: Climate Home News (climatechangenews.com), 「Senegal shows African countries are not passive beneficiaries of climate finance」, 2023-06-29

이슈 세부 정보

세네갈, 기후변화 및 기후대응

항목	주요 내용
기후변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이후 평균 기온이 약 0.9°C 상승하여 10년마다 평균 0.2°씩 상승 - 강우량이 10년당 10~15mm 감소하고 우기가 짧아지며 일일 강우량과 짧은 건기의 빈도가 증가 - 침식으로 인한 모래 및 암석 해안선 손실 및 해수면 상승
분야별 영향	<p>농업 및 식량 안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강우량 증가 및 해수면 상승은 농경지의 침수, 황폐화 및 염분화로 인한 농작물 손실 및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 가뭄 및 홍수 빈도 증가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및 바이오매스 생산량 감소,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농민 생계의 불안정화, 산불 및 해충 감염 증가 예상
	<p>수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 상승과 연간 강우량 감소로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가용성과 접근성 감소 - 이에 따라 세네갈의 생계, 식량 안보, 건강뿐 아니라 지역, 국내 및 해외 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음
	<p>해안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네갈 해안 주택의 약 74%가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안 침식으로 인한 인프라, 사업체, 천연자원, 생태계의 파괴 가능성 높음 - 해수면 상승으로 농업, 산업 생산, 광업, 관광업 등 해안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 및 지표수, 지하수, 토양의 염분화로 해안 인근 지역의 경작,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
	<p>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 강우량 감소, 대기 및 해수 온도 상승, 반복되는 가뭄, 해수면 상승으로
	<p>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와 습지의 황폐화와 파괴, 생물 다양성 손실, 침입성 해충의 번식
	<p>열대 및 삼림 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 상승, 가뭄, 산불, 장기적인 강우량 감소로 세네갈 북부의 3분의 2에서 식생과 토질에 큰 영향을 미쳐 삼림 식생의 높은 폐사율 및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짐
NDC 목표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전망치 대비 2030년까지 BAU 대비 7%(무조건) - 29.5%(조건부)
에너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에서 발전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발전량 90% 액체 연료 의존) - 전력생산 비용 34-39센트/kw (소비자 지불 비용 24센트/kw, 차액 보조금 지급) - 국가 Emergency Senegal Plan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정부 최우선과제로 선정

자료: USAI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Senegal

참고 문헌

□ 참고 사이트

1. [usaid.gov](https://www.usaid.gov)
2. ec.europa.eu
3. [thegef.org](https://www.thegef.org)
4. [climatechangenews.com](https://www.climatechangenews.com)
5. [pumps-africa.com](https://www.pumps-africa.com)